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이 종 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문화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0-49세의 기혼의 성인 남자로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 198명, 미국인 184명이었다. 공동체의식의 전체점수는 한국과 미국의 조사 대상자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한국 조사대상자는 미국 조사대상자보다 동창회와 중친회에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졌고,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한국인에 비하여 종교집단, 직계가족, 친구에 대하여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보였다.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내집단의 반경도가 비자발적 집단인데 반하여, 미국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내집단의 94%가 자발적 집단이었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의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미국 조사대상자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을 잠정적인 모형으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응용을 시도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다.

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은 1960년 대 초기에 미국에서 야기된 사회적 문제, 즉 정신건강, 도시문제, 빈곤, 그리고 소외집단의 인권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된 심리학의 한 응용영역으로서 발전되어 왔다(Mann, 1978). 심리학이 전통적으로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공동체심리학은 공동체, 즉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동체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30년 남짓하지만, 19세기에 Comte 등의 사회철학자들이 이미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당시의 산업혁명과 시민운동이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부는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신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시민운동의 철학적 바탕이었던 사회계약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동체정신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Nisbet, 1962). 19세기의 사회철학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의 공동체심리학의 출발은 각기 그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Sarason(1974)이 공동체의식을 공동체심리학의 주요개념으로서 제기한 이후로 이 용어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의 개발에 기본개념이 되어 왔다(Chavis & Wandersman, 1990). 그 이후로 공동체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Chavis, Hogge, McMillan, & Wandersman, 1986; Chavis & Newbrough, 1986; Doolittle &

* 본 논문은 미조리주립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논문(1991)에 기초한 것이다.

MacDonald, 1978; Glynn, 1981; McMillan, 1976; McMillan & Chavis, 1986; Newbrough & Chavis, 1986). McMillan(1976)은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이 갖는 소속에 대한 느낌, 구성원들이 서로 또는 집단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상호관여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p.11)"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 즉 시민참여와 공동체개발(Chavis & Wandersman, 1990;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 & Chavis, 1990), 권리의 부여(Chavis & Newbrough, 1986; Chavis & Wandersman, 1990; Rappaport, 1977, 1987), 사회·정서적 지지(Cohen & Hoberman, 1983; Pretty, 1990), 그리고 문제대처(Bachrach & Zautra, 1985)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19세기말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혁, 즉 일정 35년 및 한국동란 등과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그리고 정치 및 사회의 변화는 한국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에서의 연구가 있는데, 대체로 거시적 접근으로서 한국인의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생활양식(한상복, 1988), 정치체제와 사회구조(김진균, 1983), 가족제도(최재석, 1987), 그리고 계(김필동, 1989) 등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황 특히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집단내 구성원간의 문제상황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집단내부의 역동적 기제를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개입 또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적 접근을 한국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잠정적 모형으로 응용을 시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즉 미국문화에서 발생하여 발전된 공동체심리학을 한국문화에 응용함에 있어서, 두 문화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 대한 문화적 보편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나의 문화에서 발전된 사회과학적 접근이나 용어를 다른 문화로 응용 또는 적용하고자 할 때 두 문화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파악하는 비교문화적 접근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동에 관한 개념이나 이론을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적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비교문화적 검토가 필수적이다(Cronbach, 1975; Gergen, 1973, 1987; Rappaport, 1977).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독교정신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신의 자식이다. 각 개인의 존재는 신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은 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신 앞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은 관계없이 평등하다. 이러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평등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미국문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의 역사적 배경은 도교, 불교, 유교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조 500년을 지배하여 온 유교적 전통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기초가 되어 왔다(Kalton, 1979, 1988).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인(仁)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동정을 바탕으로 한 예의로서 영어로는 human-heartedness 또는 perfect virtue로 번역된다. 이 인(仁)자는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합쳐진 것으로 인의 근본개념이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Fung, 1952). 이러한 유교의 근본정신을 근거로 동몽선습(童蒙先習)이라는 책에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행동규범은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보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조하게 되고 가족주의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최재석, 1987; 한상복, 1980; Kalton, 1979/1988).

문화간의 비연속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는 인류학에서 발전시켜 온 etic-emic 딜레마의 개념이 유용하다. etic은 관찰대상인 문화에 대하여 국외자의 관점으로 관찰자 자신의 개념적 범주와 가정에 의하여 보는 것이고, 반면에 emic은 문화의 내부인 또는 토착인의 관점이다(Hunter & Whitten, 1976). 다시 말하면, etic은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기준에 의한 행동의 기술이고, emic은 특정 문화에 대한 고유한 관점에서의 이해라 하겠다. etic과 emic 어느 관점도 문화적 비연속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문화적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 관련된 문화의 비연속성

을 설명하는 개념의 틀로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공동체의식은 각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내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의미하며(McMillan, 1976; McMillan & Chavis, 1986),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비교,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Hofstede, 1980, 1983; Triandis et al., 1988; Triandis, 1989).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의 모임을 만드는데 이 집단의 특징은 구성원이 공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며, 공동의 규범을 가지며, 공통된 정체감이 있다(Lenski & Lenski, 1978). 집단은 크기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일차집단은 면대면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소규모의 집단으로 가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차집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 관계가 덜하다. 이차집단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비교적 특수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결사체(association, 예: 정당, 노조, 정부기관 등)와 덜 공식적으로 조직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community)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지리적 공동체(geographical community)와 관계적 공동체(relational community)로 구분된다. 지리적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근거로 한 공동체로서 이웃, 동네,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계적 공동체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상호의 관계 또는 관심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공동체로서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Gusfield, 1975; McMillan & Chavis, 1986).

19세기 구라파의 사회철학자들은 공동체의 원형을 가족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Tonnis(1988/1989)가 제안한 이익사회(Gesellschaft)와 공동사회(Gemeinschaft)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동사회는 자연적인 의지가 지배하는 사회인 반면에 이익사회는 합리적 의지에 의하여 형성되고 조건화된 사회이다. Kitto(1951)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공동체의식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시민들의 성실한 헌신을 공동체의식의 심리적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사회학자들(Hillery, 1966; Nisbet, 1962 등)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공동체의식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Glynn(1981)은 공동체의식의 이상적 특성과 현실적 특성에 대하여 120개의 문항을 작성하여 키부츠와 미국의 두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 현실적 공동체의식의 가장 강한 예언변인은 그 공동체에 더 거주할 기간, 그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이름을 아는 이웃의 숫자 등이었다. Riger와 Lavrakas(1981)은 이웃사람들과의 친숙한 정도를 재는 지표로서 공동체의식을 연구하여 서로 관련된 두 개의 요인, 즉 사회적 결합(social bonding)요인과 행동적 정착(behavioral rootedness)요인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결합요인은 이웃 사람들을 알아보는 능력, 이웃의 일부라는 느낌, 아는 이웃 아이들의 숫자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행동적 정착요인은 현재의 이웃에 산 기간, 주택의 소유여부, 현재의 거주지에서 더 살 기간이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주민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짧은 뜨내기(낮은 결합, 낮은 정착), 짧은 참여자(높은 결합, 낮은 정착), 고립된 사람(낮은 결합, 높은 정착), 안정된 참여자(높은 결합, 높은 정착). 이 연구에서 친숙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연령이었다.

McMillan(1976)은 공동체의식을 네가지 하위개념, 즉 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로 분석하였으며, McMillan과 Chavis(1986)가 이 하위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소속감(membership)

소속감은 개인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감정으로,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서 투여하며 그 결과로 그 공동체에 소속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 5가지 요소가 있다: (1)공동체의 범위, (2) 정서적 안정성, (3) 소속감과 동일성, (4) 개인적 투여, (5) 공동적 상징체계.

상호영향(influence)

이 상호영향은 양방향적이다. 즉 개인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요구의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reinforcement)

요구의 충족은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인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행동의 동기수준을 말해 준다.

정서적 유대(emotional shareness)

정서적 유대는 개인이 소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오래 관계하였느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설명하는 하위개념들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1) 접촉 가설, (2) 상호작용의 질, (3) 사건의 명확성, (4) 공유된 사건의 중요성, (5) 투여, (6)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밀도, (7) 정서적 유대감.

네 가지 하위개념들은 각기 독립적인 정적 요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각각의 요소가 공동체의식의 요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각 요소의 중요도와 가능성은 공동체의 특성과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공동체 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은 확일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그들의 특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각 개인과 그 공동체 자체의 독특한 역동적 양식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Chavis 등(1986)은 공동체의식의 구성개념을 타당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Brunswick의 렌즈모형(Hogge, Fellendorf, Moore, & Wuescher, 1979)을 사용하였다. 렌즈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요소와 특성들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라기보다 현상적이기 때문이다. 렌즈모형에 의하면, 공동체의식과 같은 어떠한 현상도 그 실제적 수준은 직접 관찰될 수 없으므로 일련의 변인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선적으로 추출된 100명의 공동체의식 프로파일을 21명의 전문가에게 평정하게 한 결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일치도가 높았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요소와 관련된 변인들로 전문가들의 공동체의식점수를 예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이론을 지지하였으며, 과학적 연구와 개입을 위한 틀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을 돌보는 행동, 거주기간, 주택의 소유여부, 자발적

모임에의 참여 등이 전체공동체점수 뿐 아니라 네 가지 요소와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란 개인과 집단 사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맥락과 관련된 여러 용어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다. 문화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심리·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화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편차의 차원을 결정하여 문화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문화인류학적 관찰에 근거한 Mead(1967)의 협동-개인주의의 개념이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최근에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Hofstede, 1980, 1983;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등).

전통적으로 개인주의는 "상황이나 사회적 집단의 관심들과 관계없이 개인의 관심들을 선호하는 주의(Webster's II 사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Hofstede(1980)는 개인주의를 "집단 또는 조직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라고 정의하였다. Waterman(1981)에 의하면 Maslow, Erikson, Rotter, Kohlberg 등의 이론가들의 심리학적 의미들이 규범적인(윤리적인) 개인주의의 철학적 틀 내에서 볼 때 가장 적절히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주의를 규정하는 세부특징들로 행복주의, 선택의 자유, 개인적 책임, 타인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 포변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서 Waterman(1984)은, 개인주의가 네가지의 심리적 특성, 즉 개인의 주체성(Erikson), 자아실현(Maslow), 내적 통제(Rotter), 초인습적 도덕 추론(Kohlberg)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Hui와 Triandis(1986)는 집단주의를 대인적 관심에 관련되는 감정, 정서, 신념, 관념, 및 행동들의 복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복합은 다음 7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1) 타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결정의 효과에 대한 고려, (2) 물질적 자원에 대한 공유, (3) 덜 물질적인 자원의 공유(예: 자신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유보하기), (4) 타인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5) 자기표현과 체면상실에 대한 염려, (6) 자신의 결과가 타인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신념 (7) 타인의 생활에 대하여 투여하고 기여한다는 느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

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Triandis 등(1988)은 집단주의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어떤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도록 유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집단은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안정된 내집단(stable ingroup)이라고 하였다. 이 내집단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에 도움이 되는 속성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내집단이 구성원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은 그대로 그 내집단에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가족, 직장동료, 운동클럽, 오토바이깡 등 다양하고 많은 내집단이 있으며, 내집단의 각기 다양한 목표에 자신들의 여러 목표를 일치시킨다. 내집단에서 구성원에게 불편한 요구를 하면 탈퇴하여 새로운 내집단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종류의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대조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내집단이 구성원에게 산만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Triandis 등(1988)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세력관계가 불균형적이라고 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수직적 관계이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부관계, 친구관계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지시, 자문 등을 자주하여 상호의 존성을 최대화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분리, 독립, 그리고 자녀의 사생활 보호가 더 강조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수준에서의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개인·심리적 수준의 특징을 분석하는 개념들로는 개인성향-집단성향(idiocentric-allocentric)을 사용한다. 이 개인·심리적 수준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Triandis 등(1985)은 개인주의 문화(미국 일리노이주) 내에서의 각 개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개인성향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취적이지만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집단성향인 사람들은 자

신들은 소외감을 적게 갖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riandis(1988) 등에 의하여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수준과도 상관이 있다. 개인주의 문화는 높은 수준의 국민총생산과 관계(Cobb, 1976; Hofstede, 1980)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자살, 이혼, 아동학대, 정서적 스트레스, 신체 및 정신적 장애와 같은 사회병리의 수준이 높은 것(Cobb, 1976; Naroll, 1983)과도 상관이 있다. 집단성향인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행복한 경향이 있다(Antill, 1983).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며, 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게 된다(Cohen & Hoberman, 1983; Cohen & Syme, 1985).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정신장애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Sarason, Sarason & Linder, 1983).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을 보호하고(Gottlieb, 1983),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하며(Janis, 1983),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도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한다(Sarason, Levin, Basham & Sarason, 1983). Georgas(1989)는 하나의 문화에 있어서도 도시의 표집들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농촌의 표집들은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urdock과 Provost(1973)가 제안한 문화적 복잡성의 개념과 개인주의-집단주의는 "U"자 모양의 함수 관계를 가진다. 극단적으로 간단한 사회(예: 모부티 피그미족)는 원형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보이는데, 이 부족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과는 아주 가깝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다. 복잡한 문화(예: 로마, 아즈텍, 중국)는 집단주의의 경향이 있다. 이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소수의 중요한 내집단에 관계하며, 핵가족→대가족→씨족→도시→국가와 같은 동심원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다. 극단적으로 복잡한 문화(예: 현대의 산업화한 문화)의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보다 많은 수의 내집단에 관계한다. 현대의 문화는 개인주의로서 내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일 뿐 아니라 내집단과의 거리감(정서적 분리)도 유지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한 개인이 소속한 내집단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Triandis et

al., 1988).

문화적 복잡성에 더하여 개인주의 문화에 전제되는 가정은 (1) 개척자들이 있고, (2) 상당한 숫자의 외래 이민이 있으며, (3)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개인에 대한 내집단의 영향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Hostede(1980)는 이 기준에 의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가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Triandis 등(1988)도 이와 일치되는 보고를 하였다.

인류학자 Hsu(1981)는 미국사람들의 내지향성은 그들의 동조(conformity)에 대한 분노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개인중심의 생활방식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상황중심의 생활방식과 대조적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동조가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승인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서양의 관찰자들은 미국의 아동들에 비교하여 중국 아동들의 행동에서 반사회적 행동과 파괴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의 예를 더 적게 관찰하는 반면에, 더 많은 수의 친사회적행동을 관찰하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연구들(Gudykunst, Yoon, & Nishida, 1987; Hofstede, 1980, 1983; Hsu, 1971, 1981, 1983; Inkels, 1983; Kim, Park, & Suzuki, 1990; Stewart, 1966; Triandis & Vassiliou, 1972)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서북유럽 국가들이며, 집단주의 문화인 나라들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그리스와 남부 이태리 등의 남유럽 국가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다. 이웃 일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내에 있어서 스페인계통의 이민들과 극동출신의 소수민족들은 서북유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집단성향임을 보여주었다(Marin & Triandis, 1985; Triandis, 1983).

집단주의 문화로서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교에 근거를 둔 가치관과 행동규범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이조 500년 역사를 통한 유교의 전통은 그 중심사상인 인(仁)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였으며(Fung, 1952), 특히 효(孝)와 충(忠)의 덕목은 대가주제도의 발달과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행동규범으로 강조하여 왔다(최재석, 1987; Choi, 1980). 이러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전통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된 현대의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e Bary(1988)는 유교의 가치관이 현대의 아시아 국가에서 미치는 영향은 자기수련, 집단에 대한 충성, 검약, 극기,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진균(1983)은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및 직장동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직망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회적 기제라고 분석하였다. 현대의 한국사회가 전통적 가치관과 행동규범과 서구의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새롭고 고유한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추구하고 있다(de Bary, 1988)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상복(1980)은 한국의 도시인들이 서구화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대부분의 대인관계는 친척, 학교동창, 동향인 등으로 형성되며 정서적 만족, 사회경제적 안정 등이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통적인 상호성의 원리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Hofstede(1980, 1983)는 일과 관련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50개 국가에 대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를 평정하였다. 이 연구의 개인주의척도 점수에 의한 한국, 일본, 미국의 개인주의의 순위는 각각 11위, 28-29위, 50위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집단주의문화로 분류되었다. Hofstede의 연구들(1980, 1983)과 Triandis(1986)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5)에 기초하여 행해진 최근의 두 연구에서도 한국문화에서 집단주의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Gudykunst, Yoon과 Nishida(1987)에 의하면 한국의 피험자들이 내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화와 동시화를 일본과 미국의 피험자에 비하여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피험자들은 내집단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일본과 미국의 피험자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Kim, Park과 Suzuki(1990)는 한국의 피험자들이 보수의 형평분배 원리를 미국과 일본의 피험자보다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심리학의 중요한 구성개념인 공동체의식과 문화의 비연속성을 분석하는 개념틀인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해서 지금까지 위에서 행해진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은 혈연관계(가족, 친척, 세족)와 안정적이고 비자발적인 내집단(동창회)에 소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직계가족과 자발적 내집단(운동모임, 봉사활동 모임)에 소속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이 소속한 내집단의 수가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이 소속한 내집단의 수보다 많을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표집

연구의 목적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가 각 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들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변인과 집단을 포함시키는 유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Babie, 1990)을 사용하였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하여 운동클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Triandis, 1989) 성에 따라 내집단에 대한 태도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남자만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므로(Marin & Triandis, 1985)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백인들로 미국의 조사대상자를 한정시켰다. 도시사람들이 농촌사람들에 비교하여 개인주의적이므로(Georgas, 1989; Katakis, 1984)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표집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사대상자는 기혼 남자로서 나이는 30세에서 49세까지이며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직장을 가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 조사연구에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한국의 조사대상자와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동등하게 층화되었다.

설문지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Sense of Community Questionnaire, SCQ)

이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는 Chavis 등(1986)과 McMillan과 Chavis(1986)의 연구를 응용하여 작성

하였다. 공동체의식의 4가지 하위개념(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정서적 유대)에 각각 3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12개 문항).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연구(Pai, 1990; Triandis et al., 1988)와 현대 한국 사회에 관한 연구(김진균, 1983; 최재석, 1987; 한상복, 1980; Kalton, 1979/1988; Pai, 1990)에서 중요한 내집단으로 언급된 아홉가지의 내집단(직계가족,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이웃, 직장동료, 친구, 동창회, 종교집단, 취미집단)을 대상집단으로 결정하였다. 12개의 문항에 9가지의 대상집단에 대하여 각각 반응하게 하여 실제로는 108개(12×9)의 문항이 되었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마지막에 조사대상자들이 소속한 공식·비공식의 모든 집단을 나열하게 하였다. 12개의 문항 가운데 네개의 하위개념에 각각 한 개씩 방향이 거꾸로 된 부정적 문항을 넣어서 모두 4개의 부정적 문항을 두었다. 이 문항들의 반응은 채점과정에서 역으로 환산되었다(예: 5→1, 1→5 등). 각 하위개념의 3개 문항에서 9개 대상집단에 대한 27개 반응의 평균이 각 하위개념의 점수로 산출된다. 대상집단의 점수는 12개 문항에서 각 대상집단에 반응한 12개의 평균이다. 전체공동체점수는 4개 하위개념점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동네에 관한 설문지(Modified Sense of Community Index, MSCl)

동네에 관한 설문지는 공동체의식 척도(Sense of Community Index: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 & Chavis, 1990)를 수정(영어 설문지에서 block을 community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공동체의식의 4가지 하위개념에 대하여 각각 3개의 문항이 배정되어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이며 진위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문항은 다음의 11가지이었다: 나이, 교육수준, 결혼기간, 종교의 종류 및 기간, 주거형태, 현재의 동네에 거주한 기간, 현재의 동네에 더 살 기간, 직업, 현재의 직업에 재직할 기간, 현재의 직업에 더 재직할 기간.

번역

설문지조사에 대한 인사말,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 동네에 관한 설문지,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 등을 두 사람의 한국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

다. 제삼의 한국인이 두 번역안을 검토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역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번역과정에서 몇 가지의 문화적 비연속성에 관해서는 etic-emic 딜레마를 고려하여 번역하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my”는 “나의”가 아니라 “우리”로 번역하였다.

조사과정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캔사스시 서남부의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공립국민학교 아동들의 아버지들과 미조리주립대학 캔사스캠퍼스 주변의 남자성인들 중에서 유의적 표집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표집되었다. 대개의 조사대상자들에게 먼저 전화로 접촉을 시도하여, 연구자 자신을 소개하고, 조사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서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절할 기회를 주었으며, 설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안내문과 설문지를 우표를 붙인 반신용봉투에 넣어서 우송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도 전화로 접촉한 경우와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반신용봉투를 직접 전달하였다. 조사에 자원한다는 승락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지에 응답하여 우송을 한 조사대상자들은 조사에 자원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지를 발송한 후 2주일 이 지나서 우송이 가능한 152명에게 응답을 독려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한국에서의 조사실시는 세 사람의 연구협조자가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외곽의 중도시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과 과정은 미국에서와 같으나 전화를 사용한 경우보다 직접 접촉한 경우가 더 많았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한국에서는 278부의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226부가 회수되어 8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미국에서는 배부된 358부 중에서 204부가 회수되어 5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끝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382명(한국, 198명; 미국, 1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6.9세($SD=5.21$)이고 미국은 39.8세($SD=5.02$)이었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은 평균 8.3년($SD=5.50$: 범위,

1-23년)인데 비하여 미국 조사대상자는 이보다 길어서 13.9년($SD=6.60$: 범위, 1-28년)이었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61%가 대학졸업, 33%가 대학원졸업의 수준인 반면에 미국은 58%가 대학원이고 31%가 대학교육 수준이어서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았다($X^2(2)=35.76, p<.001$).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집단 모두 약 90%가 대학교육 이상의 수준이었다.

종교에 관해서는 두 집단 간에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42%가 종교를 갖지 않은 반면에 18%의 미국 조사대상자에서 종교가 없었다. 한국 조사대상자들에서는 개신교(24%), 불교(18%), 그리고 천주교(15%)의 순서이었으나, 미국 조사대상자들은 개신교(56%), 천주교(14%), 그리고 유대교(7%) 순서로 분포되었다($X^2(5)=94.45, p<.001$).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종교를 가진 기간의 평균은 18.3년($N=105, SD=11.28$)인데 비하여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은 30.3년($N=142, SD=13.69$)으로 훨씬 길었다.

주택소유율에 있어서 한국 조사대상자들(자가, 60%; 임대, 40%)이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자가, 92%; 임대, 8%)에 비하여 훨씬 낮았다. 한국의 1989년 전국 주택보급율이 71%이고 도시지역이 60%(연합연감, 1990)인데 비하여 미국은 1980년에 113%("한국 GNP", 1991)이어서 본 조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주택보급율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동네에 거주한 기간은 두 집단이 비슷하였다(한국: $M=6.3$ 년, $SD=7.68$; 미국: $M=6.8$ 년, $SD=5.25$). 나이를 공변량으로 통제했을 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379)=.16, p<.05$). 그러나 현재의 동네에 얼마나 더 살 계획이냐는 질문에 한국 조사대상자의 58%가 1-5년, 20%가 1년 미만, 13%가 10년 이상, 9%가 6-9년을 지금의 거주지에서 더 살 것이라고 한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은 50%가 10년 이상, 26%가 1-5년, 14%가 6-9년, 10%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하여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이 더 안정적인 집을 보여 주었다($X^2(3)=72.07, p<.001$). 다시 말하여, 한국 조사대상자들의 4/5 정도는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하거나 더 큰 집에 살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회사원(37%), 교사

(30%), 교수(12%), 행정가(5%) 등의 분포를 보인 반면에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기술자(21%), 행정가(14%), 변호사(14%), 판매/관리직(10%), 의사(8%) 등의 분포를 보였다. 여기에서 한국 조사대상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원”은 “하나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라는 의미로,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집단성향적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회사원은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기술자, 행정가, 판매원 등으로 세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기간은 한국 조사대상자가 9.2년($SD=5.79$), 미국이 11.8년($SD=6.42$)으로, 나이를 공변량으로 통제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376)=1.66, p<.05$). 한국 조사대상자의 70%, 미국 조사대상자의 79%가 현재의 직업에 10년 이상 더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6-9년이 각각 10%와 5%, 5년 미만인 각각 20%와 16%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X^2(2)=4.40, p>.05$).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들 간에 인구통계적 특성이 비슷할 수 있도록 유의적 표집을 하였으나, 11개의 인구통계적 변인 가운데 세 개의 변인(현재의 동네에 거주한 기간, 현재의 직업에서 재직한 기간, 현재의 직업에 더 재직할 기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여덟 개의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특히 교육수준, 종교의 종류 및 기간, 주거형태-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적 불연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분석을 하기 전에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SCQ)와 동네에 관한 설문지(MSCI)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SCQ의 2번 문항(이 집단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Not all the members of this group share similar values)의 전체점수와 상관계수가 $r(198)=.38$ (한국)과 $r(184)=.29$ (미국)로 다른 문항들의 전체점수와 상관계수(한국: $rs(198)=.55-.86$; 미국: $rs(184)=.65-.83$)에 비하여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요인분석(주성분 요인분석법)을 한 결과, 한국은 하나의 요인이 나오고, 미국은 두 개의 요인이 나왔다. 한국 조사대상자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은 고유가(eigenvalue)가 6.05이고, 변량의 50%를 설명하였다. 문항 2의 요인부하량은 .32인데 비하여 다른 11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7-.88이었다. 미국 조사대상자의 첫번째 요인의 고유가는 6.39이고, 변량의 53%를 설명하였으며, 2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8이었으나 나머지 11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0-.86이었다. 미국 조사대상자의 두번째 요인의 고유가는 1.10이고, 변량의 9.2%를 설명하였으며, 2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88이고 나머지 11개 문항들은 -.01-.55이었다.

각 문항과 전체점수와의 상관계수의 비교와 요인분석 결과를 검토할 때 SCQ의 2번 문항의 적합성이 의문이 되었다. 미국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2번 문항의 응답이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과 거꾸로 된 두 명을 찾아서 사후 면접의 익명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문항 2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부정적 질문인 문항 2에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결론적으로 통계적 결과와 면접을 근거로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의 문항 2는 최종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 모두 .95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두 집단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하나씩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요인의 고유가는 5.96이고, 이 요인은 변량의 54%를 설명하였다. 미국 조사대상자의 고유가는 6.37이고, 이 요인은 변량의 58%를 설명하였다. 동네에 관한 설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한국 조사대상자가 .75, 미국이 .68이었다. SCQ의 이웃에 대한 하위점수와 MSCI 점수의 상관계수는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에서 모두 유의하였다(각각 $r(194)=.40, p<.01$; $r(180)=.57, p<.01$)이었다.

결과

이 연구의 설계는 2(집단간: 한국, 미국)×9(집단내: 직계가족,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동창회, 종교집단, 취미집단) 집단간내 혼합설계이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1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Tabachnick & Fidell, 1983; Bray & Maxwell, 1982) 혼합설계에 의한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결합된 종속변인의 점수는(SCQ와 MSCI를 합한 점수)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F(1, 376)=59.35, p<.001$). SCQ와 MSCI에 의한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1, 376)=198.20, p<.001$). 또한 문화와 설문지 유형(SCQ, MSCI)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F(1, 376)=132.77, p<.001$). 결과적으로 SCQ와 MSCI는 문화의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고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이 두 종속변인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종속변인으로 인정하여 이후의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전체점수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의식 전체점수(SCQ)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한국: $M=9.23, SD=1.66$; 미국: $M=9.14, SD=1.59$; $t(380)=.44, NS$).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에 의하여 정의되고 측정된 전체공동체의식은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 사이에 비슷하였다. 그러나 SCQ의 네 개의 하위요인의 일부에 있어서 문화의 효과가 있었다. 즉 소속감점수에서는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의미있게 높았고(한국: $M=2.64, SD=.49$; 미국: $M=2.53, SD=.44$; $t(380)=2.39, p<.05$) 나머지 세 요소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대상집단별 공동체의식

먼저 1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9가지의 대상집단

의 하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문화를 독립변인으로 집단간내 혼합설계의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아홉개 대상집단내의 주효과는 의미있게 나왔으나($F(8, 3040)=488.10, p<.001$), 문화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화와 9개 대상집단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F(8, 3040)=15.95, p<.001$). 따라서 전체표집에 대하여 9개의 대상집단별 하위점수를 종속변인, 문화를 독립변인으로 세 가지의 사후검사, 즉 t -검증, Newman-Keuls 검증, 그리고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홉 개의 대상집단 가운데 한국 조사대상자는 미국 조사대상자에 비하여 먼 친척(한국: $M=1.61$; 미국: $M=1.30$; $t=4.19, p<.01$) 및 동창회 집단(한국: $M=2.01$; 미국: $M=1.07$; $t=12.31, p<.01$)에 대하여 유의하게 더 높은 공동체의식 점수를 보였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한국에 비하여 직계가족(한국: $M=3.73$; 미국: $M=3.49$; $t=5.23, p<.01$), 종교집단(한국: $M=1.57$; 미국: $M=2.09$; $t=4.61, p<.01$), 친구들의 집단(한국: $M=2.79$; 미국: $M=2.93$; $t=2.24, p<.05$)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은 공동체의식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가까운 친척, 이웃, 직장동료 및 취미집단에서는 두 문화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F	FR	CW	CR	AA, IG	NB	DR, RG
한국	3.49	2.79	2.54	2.67	2.01	1.79	1.61
	3.49 ^a	2.79 ^{bc}	2.67 ^{cd}	2.54 ^d	2.01 ^e	1.79 ^f	1.61 ^g
미국	3.73	2.93	2.70	2.66	2.06	1.79	1.30
	3.73 ^a	2.93 ^b	2.70 ^c	2.66 ^c	2.06 ^d	1.79 ^e	1.30 ^f

IF : 직계가족 FR : 친구 CW : 가까운 친척
 CR : 직장동료 AA : 동창회 IG : 취미집단
 NB : 이웃 DR : 먼 친척 RG : 종교집단

그림 1. 대상집단의 공동체의식 점수와 문화별 Neuman-Keuls 검증 결과

한국 조사대상자의 아홉개 대상집단들에 대한 공동체의식 점수에 의한 중요도의 순위는 직계가족, 친구, 직장동료, 가까운 친척,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먼 친척, 그리고 종교집단이었다(그림 1 참조). 미국 조사대상자의 중요도 순위는 한국의 경우와 같았으나 동창회와 종교집단이 완전히 서로 바뀌었다. 각 문화집단 내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Newman-Keuls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1>에 있다.

아홉개의 대상집단의 하위점수를 예언변인,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기준변인으로 판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한 개의 유의한 판별함수가 산출되었다($X^2(9) = 209.55, p < .001$). 판별함수에 의하면, 종교집단의 정적 계수가 .36이고, 직계가족이 .17이었으며, 부적 계수는 동창회와 먼 친척이 각각 -.99와 -.21이었다. 나머지 다섯개 대상집단의 계수는 무시할 수 있었다. 정적 중심(positive centroid)는 미국문화로서 .89이었고, 부적 중심(negative centroid)의 집단은 한국문화로 -.83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동창회와 먼 친척에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면 한국문화로 분류되는 반면에, 종교집단과 직계가족에게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미국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별함수의 판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382명의 조사대상자를 판별하게 하였더니 80%의 대상자를 한국과 미국문화로 바르게 판별하였다. *t*-검증, Newman-Keuls검증, 그리고 판별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소속집단의 숫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집단의 전체 숫자에서는 두 문화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한국: $M=4.7$; 미국: $M=5.1$; $t(380)=1.03$; *NS*). 비자발적 집단을 제외한 자발적 집단의 숫자는 미국의 조사대상자가 한국의 조사대상자보다 훨씬 많았다(한국: $M=2.6$; 미국: $M=4.8$; $t(380)=6.83$; $p < .01$).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비자발적 집단, 즉 가족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집단의 전체 숫자에 대한 가설 3이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거의 자발적 집단에 소속한 반면에,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집단의 반수 정도가 비자발적 집단 이어서 두 문화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국인과 한국인의 소속집단 전체 숫자로 보면 유의한 차이

<표 1> 소속집단 수의 문화간 비교

집단의 유형	문화	<i>M</i>	<i>SD</i>	<i>t</i> (<i>df</i> =380)
전 체	한국	4.7	3.35	1.03
	미국	5.1	3.75	
가족모임	한국	.4	.60	8.65*
	미국	.02	.15	
동 창 회	한국	1.6	1.51	10.58*
	미국	.3	.67	
향 우 회	한국	.1	.33	4.60*
	미국	0.0	0.00	
자발적 집단	한국	2.6	2.35	6.83*
	미국	4.8	3.55	

* $p < .01$

가 없다고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는 두 문화에서 서로 다른 특성의 집단들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 공동체의식

연구주제와 관계되는 지리적 공동체에 대한 몇가지의 추가적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네에 관한 설문지의 전체점수에 의하면, 미국의 조사대상자($M=8.8, SD=2.80$)가 한국의 조사대상자($M=6.0, SD=2.80$)보다 강한 지리적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80)=10.92, p < .001$). *MSCI* 전체 점수로 2(한국, 미국)×2(주택소유, 임대) 변량분석을 한 결과, 문화($F(1, 373)=72.53, p < .001$)와 주택소유여부($F(1, 373)=35.87,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두 가지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 두 문화에서 모두 자기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한국: $M=6.6$; 미국: $M=9.1$)은 임대한 집에 사는 사람(한국: $M=5.0$; 미국: $M=6.3$)보다 강한 지리적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동네에 더 살 기간과 지리적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MSCI* 전체점수를 2(한국, 미국)×4(1년 미만, 1-5년, 6-9년, 10년 이상) 변량분석을 하였다. 두 가지 주효과, 즉 문화($F(1, 369)=64.02, p < .001$)와 더 살 기간이 전체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F(1, 369)=14.77, p < .001$)는 유의하였으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어느 문화에서나 현재의 거주지에 살려는 기간이 긴 사람일

수록 지리적 공동체의식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한국: $M=4.3$, $M=6.0$, $M=7.1$, $M=7.8$; 미국: $M=7.8$, $M=8.2$, $M=8.9$, $M=9.4$).

논 의

한국과 미국의 중년의 남성성인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집단에 대하여 갖는 공동체의식의 전체양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동창회와 종교집단이 서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홉개의 대상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에 의한 중요도의 순위는 완전히 같았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동창회나 먼 친척들의 모임에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하여 직계가족, 종교단체, 그리고 친구들에게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인들이 소속한 집단의 전체수는 비슷하였지만 미국인들은 주로 자발적 집단에 소속한데 비하여 한국인들은 그들이 소속한 집단의 거의 반이 비자발적 집단이었다. 추가적으로 지리적 공동체 즉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에 있어서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이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의식 전체점수가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의미있게 높지 않았고, 소속감 하위점수에서만 한국 조사대상자가 의미있게 강한 공동체의식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집단주의문화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보다 행동의 내집단 조절, 상호의존성, 내집단조화의 강조 등과 같이 소속집단에 대하여 동조하도록 내집단지향의 강한 압력을 받는다는 집단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Hofstede, 1980, 1983; Triandis et al., 1985, 1988 등)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를 좀더 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체공동체의식 점수는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위점수의 합으로 산출되었다(McMillan, 1976; McMillan & Chavis, 1986; Perkins et al., 1990).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Q에서는 네 가지 하위요소에 각각 3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12개의 문항을 9개의 대상집단에 대하여 답하게 하였다. 이 9개의 대상집단들은 한국과 미국문화를 각

각 대표할 수 있는 비자발적 집단과 자발적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조사대상자의 비자발적 집단에 대한 강한 선호와 미국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집단에 대한 강한 공동체의식이 서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가설 2가 지지된 것이 이 전체공동체의식 점수의 상쇄가능성을 설명해 준다.

공동체의식의 개념과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다수의 연구(Chavis et al., 1986; Glynn, 1981; McMillan, 1976; McMillan & Chavis, 1986; Perkins et al., 1990)가 있었지만 아직 공동체의식이라는 용어의 고유한 특성과 측정도구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Glynn(1981)과 Perkins 등(1990)이 개발하여 사용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설문지들이 모두 "지리적"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9개의 다양한 대상집단에 대한 일반적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본 연구의 SCQ에의 응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CQ의 신뢰도는 높았지만, 이 설문지의 타당도, 즉 이 설문지가 공동체의식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보는 비교문화적 상황에서 9개의 다양한 대상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1과 관련된 논의에서 시사되는 비는 지리적 공동체 뿐 아니라 관계적 공동체와 보다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동시에 연구하고자 할 때 문화적 비연속성을 고려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설 2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조사대상자들의 9개 대상집단에 대한 중요도의 순서는 직계가족, 친구, 직장동료, 가까운 친척,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먼 친척, 그리고 종교집단이었다. 이 중요도의 순서가 동창회와 종교집단이 미국의 경우와 완전히 바뀐 것 이외에는 대체로 같아서 두문화 간의 보편성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창회와 종교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순서가 한국과 미국의 조사대상자 간에 서로 바뀌고,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동창회와 먼 친척을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직계가족, 종교집단, 친구는 미국 조사대상자들이 더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문화의 비연속성을 반영하는 결

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최재석, 1987; 김진균, 1983; Pai, 1990; Triandis et al., 1985, 1988)와 일치하였다.

동창회는 한국 조사대상자에게 두드러진 내집단이었으며, 종교집단은 미국인들에게 의미있는 내집단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창관계는 고려시대와 이조시대는 물론이고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 중의 하나이다(김진균, 1983; Limbird, 1988; Pai, 1990). 학연은 한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흔히 설명하는 용어로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려와 이조시대에 과거를 거친 판료들은 그들의 학연과 지연을 통하여 출세의 발판을 삼았으며, 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학연과 지연이 그 사람의 정치적·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제로서의 학연의 중요성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김진균, 1983). 소위 일류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동창회는 한국의 정치, 경제, 학문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동창회가 사회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나친” 교육열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일류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향력있는 동창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도 함께 따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 두 문화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내집단으로서 두드러지기는 하였지만, 미국 조사대상자들의 점수가 한국인들보다 의미있게 높았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최재석, 1987)와 엇갈리는 결과로서 몇가지 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세기 중반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화, 도시화 등의 서구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서구식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접하게 되었다(de Bary, 1988; Kalton, 1979/1988).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였던 고등교육을 받은 30·40대의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에서 서구의 개인주의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두번째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된 산업화는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경동(1979)은 한국의 관리·사무직 종사자들이 산업화의 결과로 그들의 직장에서 경쟁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였다. 한국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1989년에 50.7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었

으며 같은 해에 미국근로자들은 41.0시간이었다(“한국 GNP”, 1991).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가족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의 관리·사무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실제로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으면서, 역설적으로 가정을 매우 중요시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사람들이 미국사람들에 비하여 직장 동료 집단에 대하여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반드시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세번째로, 한국사회의 남성우위적 가치관과 행동규범(최재석, 1987; Kalton, 1979/1988)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족들과 상호작용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가장으로서 군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안정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이 그들의 핵가족 중심의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Eli, 1973; Lawrence, 1977). 이상의 네 가지 논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사대상자가 한국 조사대상자보다 직계가족에 대하여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졌다는 데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집단의 전체수에서는 미국 조사대상자들과 비슷하였으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두 문화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미국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집단의 94%가 자발적 집단인데 비하여 한국은 55%이었다. 한국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비자발적 집단은 주로 동창회, 가족들의 모임, 향우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학연(김진균, 1983; 한상복, 1980; Kalton, 1979/1988; Limbird, 1988; Pai, 1990), 혈연(최재석, 1987; 한상복, 1980; Pai, 1990; Triandis et al., 1988), 지연(김진균, 1987; 한상복, 1980; Pai, 1990)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조사대상자들이 속한 집단들이 주로 자발적 집단이었다는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Pai, 1990; Triandis et al., 1988)와 일치하였다.

한국 조사대상자의 지리적 공동체의식은 미국의 조사대상자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두 문화 모두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에 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지리적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Chavis 등(1986), Glynn(1981)과 Riger Lavrakas(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리적 공동체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낮

은 주택보급율과 주택을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 보는 경향이 주원인일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보급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 이동이 더 빈번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결국 현재의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낮아질 것이다.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풍조는 상향적으로 주택을 옮겨 다니도록 부추기므로 낮은 주택보급율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낮게 하는 효과를 촉진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장기간 일정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웃간의 돈독한 공동체의식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을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험적 모형으로서 한국에서 응용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Speer, Dey, Griggs, Gibson, Lubin, & Hughey, 출판중), 이 사회적 지지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자발적 집단)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자발적 집단에의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발전되어 온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을 비자발적 집단에 대한 선호가 강한 한국문화에 응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 그리고 집단내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비자발적 집단(예: 동창회, 종친회)을 보다 보편적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들 간의 배타적인 경쟁을 지양하며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전통에는 두레와 같은 전형적인 노동공동체(신용하, 1987)가 있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동정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쇠퇴한 고유의 협동정신을 부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시도한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이나 반상회 등을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하여 모이는

자발적 성격의 모임으로 이끌어 가도록 권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기자신에 가까운 집단에만 적용하여 오던 전통적인 상부상조정신을 보다 넓은 사회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도적으로 권장·유도하고 자원봉사정신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비교문화연구에서 상존하는 해결하기 힘든 장애 중의 하나는 문화 간의 비연속성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연구방법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Triandis, Malpass, & Davidson(1973)은 etic-emic딜레마를 줄이는 연구방법으로 유사 문화보편적(pseudoetic)방법과 조합법(combined etic-emic)을 제시하였다. 유사 문화보편적 방법은 특정문화에 의한 개념을 문화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으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1) 범문화적인 개념틀을 먼저 구성한 다음, (2) 이 개념틀을 문화특수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3) 문화특수적으로 정의된 범문화적 개념을 비교문화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문화보편적 방법이나 조합법이 etic-emic딜레마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문화의 비연속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교문화연구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설정, 조사도구의 개발 특히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문화의 비연속성적 맥락을 항상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문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들이 갖는 그 문화에 대한 대표성이 높을 때 그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한 대상자들, 즉 여자, 농어촌 지역주민, 고졸 이하의 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보다 더 일반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 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 김필동(1989). 조선시대 계의 구조적 특성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미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

- 교, 서울.
- 신용하(1987). 두레와 농민문화.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서울:한길사.
- 연합통신(1990). 연합연감. 서울:저자.
- 최재석(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중판). 서울:개문사.
- 한국 GNP 세계 15위. (1991년 6월 12일). 한국일보-시카고판, p.7.
- 한상복(1980).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 연구원 편, 한국의 사회와 문화, 3, 141-181. 서울:편저자.
- 한상복(1988).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심설당.
- Antill, J.K.(1983). Sex role complementarity versu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45-155.
- Bachrach, K.M., & Zautra, A.J.(1985). Coping with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127-141.
- Bray, J.H., & Maxwell, S.E.(1982). Analyzing and interpreting significant MANOVA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340-367.
- Chavis, D.M., Hogge, J.H., McMillan, D. W., & Wandersman, A.(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c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23-40.
- Chavis, D.M., & Newbrough, J.R.(1986). The meaning of community in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335-340.
- Chavis, D.M., & Wandersman, A.(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55-82.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Syme, S.L.(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Cohen, S., &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ronbach, L.J.(1975). Beyond the two disciplines of scientific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0, 116-127.
- Doolittle, R.J., & MacDonald, D.(1978). Communication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 metropolitan neighborhood: A factor analytic examination. *Communication Quarterly*, 26, 2-7.
- Eli, Z.(1973).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Row.
- Fung, Y.(1952).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orgas, J.(1989). Changing family values in Greece: From collectivist to individualis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80-91.
- Gergen, K.J.(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J.(1987). The language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In H.J. Stam, T.B. Rogers, & K.J. Gergen(Eds.),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theory: Meta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Hemisphere.
- Glynn, T.J.(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0-818.
- Gudykunst, W.B., Yoon, Y., & Nishida, T.(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perception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Gusfield, J.R.(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 response. New York : Harper Colophon.
- Hillery, G.A., Jr. (1966).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 Sage.
- Hofstede, G. (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XII, 46-74.
- Hogge, J.H., Fellendorf, Moor, J.W., & Wuescher, L. (1979). A delivery service index : Basis in valuative judgement. *Evaluation Quarterly*, 3, 643-660.
- Hsu, F.L.K. (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2, 23-44.
- Hsu, F.L.K. (1981). *American and Chinese : Passage to differences*. Honolulu, HI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su, F.L.K. (1983). *Rugged individualism reconsidered*. Knoxville, TN :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Hunter, D.E., & Whitten, P. (1976).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New York : Harper & Row.
- Kalton, M.C. (1988). Korean ideas and values. In NAFSA (Ed.) *Korean papers : Profiles in educational exchange*. NAFSA Field Service, Working Paper, #10.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Foreign Student Affairs. (Reprinted from No. 7 of The Phillip Jaisohn Memorial Papers, 1979).
- Kim, K.I., Park, H., & Suzuki, N. (1990). Reward al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 A comparison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188-198.
- Lawrence, S. (1977). *The family :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 Harper & Row.
- Lenski, G., & Lenski, J. (1978). *Human societies* (3rd Ed.). New York : McGraw-Hill.
- Limbird, M. (1988). The American experience in retrospect : Views of U.S.-educated Koreans inside Korean business conglomerates. In NAFSA (Ed.), *Korean papers : Profiles in educational exchange*. NAFSA Field Service, Working Paper, #10.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Foreign Student Affairs.
- Mann, P.A. (1978).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 Free Press.
- McMillan, D.W. (1976). *Sense of community : An attempt at defi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Nashville, TN.
-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urdock, G.P., & Provost, C. (1973). Measurement of cultural complexity. *Ethnology*, 12, 379-392.
- Naroll, R. (1970). What have we learned from cross-cultural survey? *American Psychologists*, 72, 1227-1288.
- Newbrough, J.R., & Chavis, D.M. (1986).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 : Forwar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3-5.
- Nisbet, R.A. (1962). *Community and power : A study in the etics of order and freedo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Pai, Y. (1990).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of communit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School of Education, Kansas City, MO.
- Perkins, D.D., Florin, P., Rich, R.C., Wandersman, A., & Chavis, D.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 of residential blocks :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6.
- Pretty, G.M. (1990) . Relati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o social climat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65-69.
- Rappaport, J. (1977) . *Community psychology : Value, research and action*. New York : Holt, Reinhart & Winston.
- Rappaport, J. (1987) . Terms of empowerment/exemplars of prevention :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121-148.
- Riger, S., & Lavrakas, P.J. (1981) . Community ties : Patterns of attach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55-66.
- Sarason, I.G., Sarason, B.R., & Linder, K.C. (1983) . *Assessed and experimentally provided social support* (Tech. Rep.).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 Sarason, S.B. (1974) . The perception and conception of a community. In S. B. Sarason (Ed.),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Speer, P., Dey, A., Griggs, P., Gibson, C., Lubin, B., & Hughey, J.B. (in press). In search of community : An analysis of community psychology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 Tabachnick, B.G., & Fidell, L.S. (1983) .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 Harper & Row.
- Tonnis, F. (1989) .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In R. L. Warren, & L. Lyon (Eds.).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community* (5th ed.). Chicago, IL : Dorsey Press. (Reprinted from *Community and society*, 1957,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Original work published 1887) .
- Triandis, H.C. (1989) .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C., Bontempo, R., Villareal, M.J., Asai, M., & Lucca, N. (1988) .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C., Leung, K., Villareal, M.J., & Clark, F.L. (1985) .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C., Malpass, R., & Davidson, A. (1973) . Psychology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4, 355-378.
- Waterman, A.S. (1981) . Individualism and interdependence. *American Psychologist*, 36, 762-773.
- Waterman, A.S. (1984) . *The psychology of individualism*. New York : Praeger.
- Webster's II New Riverside Dictionary*. (1986). New York : Berkley Books.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from Individualist-Collectivist Perspectives

Jong-Ha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from individualist-collectivist perspectives. 198 Korean and 184 American subjects were used for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volunteer, married, male adults who have an occupation, at least some college education, and live in urban areas. Total sense of community was similar between the Korean and U.S. subjects. The sense of community toward alumni associations and distant relatives of Koreans were stronger than that of Americans. American subjects showed stronger sense of community toward religious groups, immediate family, and friends than did the Korean subjects. Korean subjects had more involuntary ingroups than Americans and the latter had more voluntary ingroups than the former.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regarding application of American community psychology in Korea consonant with the culture of the Korean society.